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출범

✎ 변백선 기자 | ⓒ 승인 2014.09.01 15:29



▲ ⓒ 변백선 기자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이 간접고용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투기자본과 노조탄압 기업으로 악명높은 원청사용주들의 노조 말살 획책으로 장기화되면서 준법적 수준의 생존권 요구마저 묵살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의 부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 지부장은 울먹이며 "민주노총 구호처럼 해고는 살인이다. 백 명 넘는 직원들이 갈 곳이 없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112명 해고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 힘든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단체, 종교계, 진보정당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진짜 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진짜 해결사가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운동단체, 종교계, 진보정당의 대표자들이 태광-티브로드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태광-티브로드 인사팀장에게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의 입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티브로드지부가 노숙농성을 벌인지 58일만이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티브로드지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싶다"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기자회견 실황 듣기

▷ 팟캐스트 "티브로드 씨앤엠(C&M) 노동자 투쟁"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